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9월 14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41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제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 남 에스더 -

1980년 12월 4일, 그 해 첫눈이 내리던 날에 당시 초등학교 5학년생이었던 저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우뚝 서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의 큰 가지들이 다 부러질 정도로 폭설이 내렸습니다. 학교수업을 마치고 남동생과 함께 무릎까지 차오른 눈길을 헤치며 집으로 돌아가던 제 마음 속에 웬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집이 보이는 마을 입구에 이르렀을 때 저의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린 제가 보기에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옆집에 사는 당숙모님이 달려와서 와락 저와 남동생을 끌어안고 울먹이며 전해주신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읍내 장터로 지난 가을에 추수한 야채를 팔러 나가신 어머니가 눈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고 하였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 질주하던 고속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미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께서 급히 병원으로 가셨다고 하였습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에 어린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란성 쌍둥이 동생과 남동생이 저를 붙들고 같이 소리 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울음이 그치지 않는 동생들을 챙겨서 읍내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머니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저에게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엄마는 죽지 않았다. 내가 엄마를 꼭 살려서 집으로 데려갈 테니 동생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힘들겠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동생들을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라고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당시 시골 읍내의 작은 병원은 워낙 낙후되었고 제대로 된 의료기기도 없었으니, 의사 선생님이 장과열이 심하고 의식이 없는 어머니의 상태만 보고 사망진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장례를 치르라는 병원의 말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급히 구급차를 불러 서울 명동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어머니를 이송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여러 번에 걸친 큰 수술을

받고 2년이 넘는 장기간의 투병생활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셨고, 몸의 여러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머니의 간증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어머니가 4일동안 의식을 잃고 계셨을 때 흰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네 믿음을 회복하라. 핍박을 이겨내고 나를 증거하라!” 어머니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식을 되찾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결혼하기 전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세우신 충남 태안의 바닷가 마을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 동네 사람들의 핍박을 견디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많지 않은 신자들이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멩이를 던지며 “서양귀신은 몰려가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를 비롯한 신자들은 그 돌을 맞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못마땅하게 여기신 외할아버지가 서둘러 우상숭배가 심한 집안과 어머니의 혼사를 치르셨습니다. 결혼 후에 어머니는 시댁 어른들과 가족의 여러 가지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신앙생활을 그만두셨는데, 그런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적 같은 회생으로 그분들의 극심했던 핍박이 그치고 오히려 한 분 한 분씩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긴 투병생활을 하시는 동안 저는 시골 집에서 어린 동생 셋을 돌보며 보호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병하시며 교통사고와 관련된 재판에 출석하시느라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찌다가 한 번씩 집에 다녀가곤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신 그 이듬해 봄에,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날 따라 건넌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당이 제 눈에 크고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부모님 대신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학교에 다니던 저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에 가면 저를 기다렸다가 배고프다고 울며 보채는 동생들을 돌보는 것이 힘들었던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 하나 없는 성전 마룻바닥으로 내리찍는 햇살이 무척 따사로웠습니다. 혼자 마룻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강대상 앞에 있는 십자가를 멍하니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린 가슴에 쌓인 서러움과 힘겨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 그저 울다보니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교회당 문이 열리고 젊은 전도사님이 들어오셔서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날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전도사님이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고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봄부터 저는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시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저와 동생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유년시절의 추억은 온통

교회에서 보냈던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년이 되어 어리석게도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동생들을 데리고 자취하며 생활하던 중에 1980년 광주사태 당시의 사진들을 거리에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현상을 보며 삶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실족하지 않는 믿음, 오직 성경에만 근거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에 저는 선전 선동에 속아 분별력을 잃고 소위 사회정의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휩쓸렸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와도 같은 청년 시절을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철학과 급진적인 사상에 빠져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저 때문에 어머니께서 눈물로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지 10년만이었습니다. 그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던 제가 돌이켜 그간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철저히 회개하게 된 것, 성경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귀중한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기며 복음전도를 위해 헌신하게 된 이 모든 것이 오직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와진리교회에서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뜨겁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명감과 행복감이 충만하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있노라면 불의가 진실과 정의를 압제하는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와 사회 현상들을 보며 의분이 치받쳐 옵니다. 그렇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기다리며 더 힘을 내어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시편 2:1~4).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시대적인 긴박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길이 참아 저의 마음을 굳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도록, 언제나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역공과 제3권 (3단원 : 구원의 하나님)

(제15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 본문 : 마태복음 20:1-16

• 요절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 찬송 : 252장(새찬송가 518장), 257장(새찬송가 520장)

우리는 사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초청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의 백일이나 첫돌을 맞이하거나 집안에 결혼 예식이 있거나 늙은 부모님의 생신이 돌아오거나 하면 잔치를 배설하고 친지와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즐깁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그런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면 잔치를 베푸는 주인에게서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여기고 호뜻하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권위있는 사회 단체나 국가의 공적인 축하 행사에 초청을 받게 되면 사적인 초청을 받았을 때와는 또 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그 까닭은 그런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 큰 명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초청보다도 더 소중하고 복된 초청이 있으니 곧 이 세상에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1.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인종이나 국적, 남녀 노소, 학식, 사회적 지위,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치 않으시며, 심지어는 사람의 선하고 악한 것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의 잔치로 초청하셨습니다. 이를 증거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땅 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는 말씀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선민이나 이방인의 차별도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롬 3:29) 또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롬 10:11~12) 하신 말씀은 구원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값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는 또 제 삼시에도 나가 장터에 놓고 쉴 사람들을 보고는 그들에게도 상당한 값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는 제 육시와 제 구시에도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놓고 쉴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놓고 있느냐”고 물으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샅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도록 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처럼 인생의 아침인 유년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청소년기에 또는 청장년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으며, 일을 마칠 시간이 한 시간밖에 남지 않은 제 십일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주었듯이,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행 2:21)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에 앞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은 사도들이나 초대 교회의 성도들뿐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지상명령(至上命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곧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롬 1:14)고 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헌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술한 핍박을 받고 많은 땀을 흘렸지만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구원받은 자의 마땅히 행할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16)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도 불타오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몸과 마음을 다 드려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굴1길 25 (삼동)
T.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영동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동동)
T.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
T.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 30
T.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